

法 “계획서 없는 요양원 종사자 격리라도 근무시간 인정”

현장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요양원 측 “행정규칙에 불과” 불복해 소송 法 “계획서 작성 자체, 인정기준 될 수 없다” 타 환수 조치는 타당...일부 금액 취소 판결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양원에서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사자를 격리 조치했다더라도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른 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3일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A재단 측에 내린 약 988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약 1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은 지난 2022년 5월 A재단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하게 받았으며 988만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주된 처분 사유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영양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예방적 격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됐다. 특례시간 인정이 불가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A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재단 측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산정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방적 격리될 경우 1일 8시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또 “종사자들은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필요가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무 배제가 된 것”이라며 “공단은 단지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격리 계획서 미작성만으로 근무시간 불인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도 일부 종사자의 경우에 대해선 격리 조치 필요가 없었다며 A재단 측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격리 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보관 여부 자체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기

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사자 중 영양사에 대해 적극적 업무배제 조치했던 것은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이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는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봤다.
나아가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 수보다 1일을 초과 허용해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영양사의 경우 다른 종사자와 처분사유 및 환수금액이 혼재돼 있고, 증거만으로는 환수되어야 할 상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환수 금액을 모두 취소했다.
서선욱기자



한파 전야, 스케이트 타며 즐기는 휴일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흐리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중·고교생 “대통령·정치인 못 믿어” 유튜버·BJ 등 인플루언서 등 더 신뢰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대통령 신뢰도 쪼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대통령·정치인보다 유튜버·BJ 등 인플루언서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공개한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4점 만점)는 1.99점으로 직업별 대상 신뢰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치인은 2.05점으로 대통령 다음으로 낮았다.
이는 유튜버·BJ 등을 아우르는 인플루언서(2.23점)보다 낮은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3.26점)이었다. 이어 검찰·경찰(2.80점), 판사(2.70점), 언론인(2.34점), 종교인(2.25점) 등의 순이었다.
각 대상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설문지를 주고 답을 받은 결과도 비슷했다.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6.8%로 가장 높았고 검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인플루언서(31.5%), 정치인(23.4%) 순이었다. 대통령(22.7%)은 꼴지를 기록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50.0%가 ‘돈의 많고 적음’이라고 답했다. 학교 성적(44.8%), 장애(44.0%)가

뒤를 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36.5%)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돈을 잘 버는 것’(31.2%),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14.8%) 순이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71.5%가 ‘높다’고 답했다.
다만 어른이 됐을 때 성공하는 데 부모님이 부자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물음에는 46%가 ‘그렇다’고 답했다.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도 67.9%나 됐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 한다’는 질문에 초·중·고 학생의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1.4%에 그쳤다.
다만 학생들은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질문에는 56.5%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8.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1만38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희면기자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명품 등 4300만원어치 훔친 40대 실형

법원 “신뢰 관계 이용, 죄질 중해”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4300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 주인 외출한 사이 명품 의류를 가방에 숨겨 절취하는 등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

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